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이종민
	포용적 근린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용국
수시 과제	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 개정 연구	서수정
	지자체 보행안전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오성훈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지역특화재생모델 운영 및 모니터링 연구	여혜진

기본과제

❶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국내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행복한 건축실현’을 목표로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서 근린생활권 단위로 도보 10분 내 복지시설 수요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 정부에서는 경제성장 목적의 토목 SOC에서 포용적 관점에서의 생활SOC, 즉 근린생활단위의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이 개발 및 추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별 시설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인프라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시설을 공급하는 기준이 결정되는 등 지역별 수요 특성과 가구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 및 시설 공급체계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개별 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 시 수요자의 이용접근성, 시설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인구 규모 또는 지자체별로 균등 배분하는 등 현실적인 지역현황과 맞지 않는 공급 방식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복지시설 공급과 수요에 대해 관련 분야의 정보를 구축하고 공간정보 분석을 수행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복지시설 취약지역을 도출함과 동시에 효율적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복지시설 중에서도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인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문화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를 대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한 공간분석 방법론을 개발 및 적용하여 복지시설 취약지역의 도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인구 변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가용부동산 등을 고려하여 시설 조성 전략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종민

② 포용적 근린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된 후 약 50년이 경과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 훼손과 공중 보건 문제에 대응해 지속적인 공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 1인당 9.2m²의 공원 면적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공원 면적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공원의 다원적 기능을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미흡하다.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다수의 공원이 입지해 있고, 전체 공원의 32%가 조성된 후 30년이 경과했다. 지역별 공원 접근기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원 사업은 단순 물리적 환경 정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포용도시 개념이 부각하고 있다. “재산, 성별,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회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포용도시는 오늘날의 도시와 공원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맞닿아 있다. 현 정부의 국정전략인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원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연구는 다음의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공원 정책 현황과 포용적 관점에서의 접근기회를 분석한다. 노후·방치된 공원 현황과 신규 공원 확충과 비교할 때 기존 공원의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예산 현황을 조사한다. 노인, 영·유아, 빈곤 및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폭염 등 환경적 취약계층 등 사회·경제·환경적 지위(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status: SEES)에 따른 공원 접근기회의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도시 포용성 제고와 재생 차원에서 근린 특성과 상대적 정책 필요도를 고려한 공원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세 개 대상지에서 공원 기반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사업 시범 모델을 제안한다. 셋째, 공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근린재생 효과를 도출한다. 산업연관효과분석과 조건부가치평가법

(CVM)을 사용해 포용적 관점에서의 공원서비스 개선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넷째, 공원 기반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공원의 조성 관리 과정에 주민, 기업, 협동조합,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제안한다.

김용국

수시과제

① 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 개정 연구

국토교통부는 2009년 8월 공동주택 미관 증진을 위한 디자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고시하여 인허가 과정에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건축디자인기준’에서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유형별 건축디자인 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은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심의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 1~2인 가구 증가와 주거문화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 건설의 확산,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성능기준의 증가 등 사회적, 제도적 여건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 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최근의 제도 및 주거문화 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국내 제도 현황, 국내외 우수 디자인 사례조사 및 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목표 및 방향을 설정

2 지자체 보행안전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보행자 중심의 국가정책의 추진기반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는 등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국적인 보행안전과 관련된 투자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3년간 총 예산규모는 약 4,66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등의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별 지자체에서는 자체예산으로 보행안전,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수정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회원국 평균보다 아직 2배가량 높고, 이는 30개 회원국 중 29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4명으로 이는 OECD회원국 평균 3.0명의 4.8배 수준이며 최하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보행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지속적인 심화,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적 비전과 구상에 있어 근거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특히 새로이 증가하는 보행정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정책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정책수단과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정책적 노력에 대한 비교 및 평가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존의 보행안전지수를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행안전 정책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자체 단위의 보행안전 수준 및 정책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보행안전지수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보행안전지수의 해석을 입체적으로 검토,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지자체의 취약 부문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개별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안 제시 및 지원방안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오성훈

③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지역특화재생모델 운영 및 모니터링 연구

도시재생뉴딜정책의 7개 지역특화재생모델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 의해 각 부처와 협업에 의한 역사/문화 재생, 건축경관 재생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모델로 도입되었다. 이 중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는 건축경관 특화형 및 건축자산 연계형 지역특화재생모델은 지역의 물리환경적 자산 중 건축물, 경관, 건축자산 등을 대상으로 하여 활성화계획 수립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절차는 그간 2차원 계획에 머문 활성화계획 승인 이후 제대로 된 공간계획 및 설계 없이 시공을 위한 실시설계가 수행되고, 단위사업별/공종별 발주가 쪼개지고 분리되어 장소 중심의 양질의 환경조성이 어렵고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품격을 갖추기 어려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기반 통합마스터플랜 및 설계발주기준을 포함한 통합디자인지침을 수립하고 필요시 주요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디자인 의도 구현의 행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과제 착수 전 단계에서 도시재생사업 기획단, 건축국, 도시재생지원기구, 전문가집단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공모 가이드라인, 추천 및 선정기준 등의 수립과정과 선정과정을 기록하고, 사업 선정 후 2018년도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건축경관/자산 지역특화재생사업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 사업설명회, 주요 이해관계자 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2018년 선정된 곳은 건축경관특화형에 인천(중심시가지형), 경기 광주(일반근린형), 경남 창원(중심시가지형)이며, 건축자산연계형에 대구 중구(중심시가지형)까지 총 4곳이다. 사업 착수단계에서 지자체 담당자 및 관계자, 외부전문가와 합동워크숍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의 건축경관특화형 및 건축자산연계형 사업 추진 절차의 취지와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향후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단

계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각 지역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과 원활하게 연계 운영 가능한 건축기반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현장기반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여혜진

2018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 (사)한국여성 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월 18일(목) 서울 이노스페이스에서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존중받는 생로병사를 위한 환경적 모색: 老의 享有'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환경과 공간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현희 부회장((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의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기초발제와 세 편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경숙 명예회장((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은 '행복한 노년의 삶을 누리는 시니어 되기'를 주제로 한 기초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시니어 인구 관련 현황, 초고령사회를 둘러싼 이슈와 행복한 노년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최현철 교수(가천대학교)가 '건강한 노후의 일상생활을 약속하는 미래주거공간'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최현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IT 기술·주거공간이 결합된 '헬스케어 스마트 공동주택', 전천후 생활 보조가 이루어

지는 주거공간 플랫폼 AAL(Ambient Assisted Living) 등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김선아 대표(SAK 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시경유람: 시간의 경관을 유람하다'를 주제로 사람 중심, 도시에 쌓인 시간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변나향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지역사회 지속거주(AIP)를 위한 고령자주거와 생활지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변나향 부연구위원은 현재 고령자 주거 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소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이현희 교수(가천대학교)를 좌장으로 세미나의 발제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고령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지원이 시급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다시 한 번 공감하였으며 공공의 지원, 커뮤니티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고영호





2018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한옥’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이하 국가한옥센터)는 10월 19일(금)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18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을 개최하였다.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은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옥 정책과 한옥 문화 진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온 행사이다.

올해는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한옥’을 주제로, 북한의 건축과 도시·전통 주거를 둘러싼 현황과 담론, 전문가들의 연구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한옥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및 정책 연구·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소현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북한의 건축과 도시, 전통주거의 현황과 담론을 대중과 공유하고,

향후 한옥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과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로서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개회사 이후 총 네 편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신치후 센터장(국가한옥센터)이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가한옥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신치후 센터장은 그간 국가한옥센터에서 수행해 온 연구·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북한 한옥 조사 및 용어 정리, ▲한옥 인력 교류 사업 등 향후 국가한옥센터의 역할과 실천과제를 제언하였다.

이어 강영환 교수(울산대학교 건축학부)가 ‘북한 한옥의 재조망 - 실향민들의 기억과 재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강영환 교수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토대로 북한 전통주거의 건축적 특징과 변용, 지역성과 계층성 등 연구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남과 북, 콘크리트 전통건축의 형성과 특징’을 주제로 발표한 안창모 교수(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는 남한과 북한의 도시·건축에서 나타나는 전통성의 시대적 변화와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박동민 박사(서울대학교 건축학과)가 북한 건축계의 전통 인식: 담론과 실험’을 주제로, 북한에서의 전통건축에 관한 이해와 담론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성우 명예교수(연세대학교)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 외에 이왕기 교수(목원대학교 건축학부), 황두진 대표(황두진 건축사사무소), 이형재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건축학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포럼 참석자 함께 질의응답 및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신치후

한·일 국제워크숍 '공유주거 - 새로운 주거문화의 시작'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1월 1일(목) 서울 카우앤 독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함께 '공유주거-새로운 주거문화의 시작'을 주제로 한·일 국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국제워크숍은 새로운 주거문화로서 셰어형 주택의 개념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공유주거의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향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국토교통부)과 성광식 도시재생본부장(LH), 서수정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한국과 일본의 셰어형 주택 운영 사례가 소개되었다.

먼저 이상욱 대표(어반하이브리드), 김동찬 대표(만인의 꿈), 김수민 대표(로컬스티치), 허지웅 대표(디웰)가 청년들을 위한 셰어형 주택을 운영하게 된 배경과 주택별 특징, 운영 현황과 특화 공간 및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김동현 매니저(Borderless House)와 아사카와 다이스케(浅川大輔) 자산활용사업본부 그룹리더(ReBITA)는 일본에서의 셰어형 주택 운영 현황과 특징 등을 공유하여, 한국에서 운영 방식과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발제 이후 세 개의 세부 주제로 '공유형 주거문화 공감 및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자로는 김연길 매니저(벌집커뮤니티), 나

태흠 대표(사회적기업 안테나), 박철홍 청년주택사업처 부장(LH), 최주원 대표(공명), 현승현 대표(쉐어어스)가 참석하였다.

첫 번째 세부 주제인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살아가기'에서는 현재 셰어하우스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LH의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공유되었다.

두 번째 세부 주제 '공간의 공유를 넘어 삶의 공유로'에서는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및 공급 시 청년 수요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공공주택에서 공유주거로(새로운 주거문화와 공공의 역할)' 세부 주제 토론에서는 실제 청년 수요와 취향을 고려한 셰어하우스의 공급이 필요하며, 셰어하우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과 공공의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와 기관 관계자, 국내외 셰어하우스 운영자, 셰어하우스 입주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주거 수요 대응을 위한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

서수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연구원과 함께 11월 29일(목) 서울 SC컨벤션 아나이스홀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가 재정비 중인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의 도시재생 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3월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 중심, 수요자 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 중인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생활 수요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시설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박소현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개회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대독)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김태영 연구원(국토연구원)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주거지 실태와 독일·영국·일본 등 해외 정책 사례,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는 성은영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맡아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의 추진 배경과 방향, 재정비(안)의 내용,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박인석 교수(명지대학교 건축학부)의 진행하에 앞선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미옥 선임연구위원(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생활 SOC에 대한 각 부처간 기준의 정합성 문제 해결과 정책 중앙 공급을 위한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요섭 도시재생계획처장(한국토지주택공사)은 지자체가 생활SOC에 대해 ‘(가칭)생활SOC 전략계획’과 같이 스스로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도채 부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발표된 재정비(안)에 기존 항목(시설) 보완이 필요하고 농어촌발 전계획과 같이 지방정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재운 교수(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는 국가적 최저기준으로서의 보편성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여건 반영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조경민 대표(서울산책)는 접근성 기준 수립 이전에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개선과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의 운영, 관리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 참여 등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국토교통부)은 지자체 수준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은영

2018 민관협력 도시활성화 국제세미나 ‘갑을 말고 파트너로’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2월 4일(화) 서울 연남장에서 2018 민관협력 도시활성화 국제세미나 ‘갑을 말고 파트너로’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도시성장 시대 속에서 규정되었던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보고, 미국 포틀랜드와 일본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관협력 사례를 통해 향후 지속될 도시 활성화의 새로운 기준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윤주선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민관협력을 위한 민관 역할의 재편’ 발제로 시작되었다. 윤주선 부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의 시대, 축소의 시대에 공공 주도의, 공공의 지원에 의존하는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민관협력 도시재생, 프로세스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포틀랜드, 내 삶을 바꾸는 도시혁명(ポर्टランド世界で一番住みたい街をつくる)>의 저자이자 포틀랜드 ZIBA의 디렉터인 야마자키 미츠히로(山崎満広)가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정책이 어떻게 적용·발전되어 왔는지 포틀랜드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1960년대까지 공업의 발달 등으로 수많은 도시문제를 안고 있던 포틀랜드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포틀랜드 다운타운 계획’을 통해 변화한 과정이 발제를 통해 공유되었다.

발제 후에는 조성익 교수(홍익대학교)를 좌장으로 공공과 민간, 학계의 인사들이 참석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공공 부문에서는 황석연 과장(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민간 부문에서는 조세원 상무((주)야놀자), 공공과 민간의 중간지원조직 부문에서는 진정환 센터장(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학계 부문에서는 모종린 교수(연세대학교)가 참석해 방청객들과 함께 공공과 민간, 학계의 역할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현재 도시에서 민관협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입장 차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며, 주민과 민간이 참여해 성공을 거둔 사례를 늘려감으로써 전문성 있는 기업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윤주선

2018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 도시 만들기’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2월 12일(수)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 도시 만들기(Walkable & Safe City)’를 주제로 2018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는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국내외 보행환경 정책과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보행환경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총 세 개 세션에 대한 주제 발표와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위한 종합토론’으로 이뤄졌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행정안전부)의 개회사, 박소현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축사 후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페드로 오면스 고베아(Pedro Homem de Gouveia) 보행접근성 계획팀장(포르투갈 리스본시)이 리스본시의 보행안전사업 전략과 투자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우승국 보행·친환경개인교통연구팀장(한국교통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보행안전 사업 현황과 투자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설계의 균형’을 주제로 국내외 보행환경 정책 현황과 실천 전략을 살펴보았다. 먼저 아나스타시아 루카이토-시더리스(Anastasia Loukaitou-Sideris) 교수(미국 UCLA 도시계획과)가 미국의 최근 10년간 보행환경 프로젝트 주요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 오성훈 도시연구본부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극한 기후, 도시쇠퇴 등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행도시 조성 필요성과 설계 전략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세션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츠카구치 히로시(塚口博司) 교수(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도시시스템공학과)가 발제를 통해 지난 50년간 일본의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일본의 보행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설명하였다. 조준한 책임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 뒤이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국내 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제안하였다.

세션별 발제 후에는 최기주 회장(대한교통학회)이 좌장을 맡고 보행안전 관련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8인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오성훈



2018 AURI 건축도시포럼 'AURI 정책연구 10년 -건축도시 정책연구의 성찰과 비전'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2월 26일(수) 청암아트홀에서 2018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AURI 정책연구 10년 -건축도시 정책연구의 성찰과 비전'을 주제로, 올해 연구소의 주요 연구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2019년도의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박소현 소장의 개회사로 문을 연 행사는 사업별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서수정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목표와 달성 전략을 설명하였다. 이어 엄철호 연구위원이 공공건축 지원사업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였다. 윤주선 부연구위원은 장소중심의 마을재생 지원사업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국토 경관관리체계 구축·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이상민 연구위원이 발표하였다.

이어 손동필 연구위원은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성과와 계획을, 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보행친화적인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가로 조성을 위한 전략을 설명하였다. 조상규 연구위원은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성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였고, 이은석 부연구위원은 신 기후체제 대응 지속가능 건축·도시정책 지원사업의 목표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신치후 연구위원은 한옥 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유광흠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고영호



2018 auri 마을재생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월 11일(목), 12월 6일(목) 2018년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0월 11일 열린 세미나는 '건축외계(建築外界) 시국대담회 -짓는 건축에서 잇는 건축으로'를 주제로 제주도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되었다. 인구 감소와 도시재생의 시대에 건축 이전의 기획과 지은 이후의 운영까지 건축가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실천가들의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건축이 변해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자로는 윤주선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과 조성익 교수(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요시자토 히로야(吉里裕也) 공동대표(도쿄R부동산)가 참석하였다. 윤주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도시재생 주체로서 도시재생 스타트업의 가능성과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 조성익 교수는 '매력'과 '콘텐츠'의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요시자토 히로야 대표는 빈집과 빈 점포를 수요자에게 중개하고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리모델링 등을 수행하는 도쿄R부동산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12월 6일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중회의실에서 '공간 운영자가 들려주는 (운)영자의 전성시대'를 주제로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발제자로 서울시 청년공간 G밸리를 오랜 기간 운영했던 박주로 대표와 권진영 이사(주)로모)가 참석하여, 공간운영사업의 변화와 미래, 공간 운영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설명하였다.

윤주선

2018 한옥문화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월 23일(화), 11월 13일(화), 12월 21일(금) 2018 한옥문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0월 23일 열린 2018 제4차 한옥문화 세미나에는 김영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가 '상업용도로 변용된 한옥의 변화양상'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김영수 교수는 현재 한옥밀집지역에 위치한 한옥들이 주거용도에서 상업용도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11월 13일 제5차 한옥문화 세미나는 '부여, 다음을 부여하다'를 주제로 '부여 고도보존지구 가로공간 개선방안 연구'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연구를 진행한 김대일 소장(피그건축사사무소), 이양재 소장(엘리펀트건축사사무소), 최재원 소장(플로건축사사무소)이 발제를 통해 부여 원도심의 가로공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운 전략과 내용, 주안점 등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였다.

12월 21일 열린 제6차 세미나는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의 보존, 관리, 활용사례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주제로 열렸다.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는 1931년 건축된 체부동성결교회를 문화커뮤니티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사례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세진 소장(지오건축사사무소)의 발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발제를 통해 붉은 벽돌 벽 등 기존의 요소를 보존하면서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서 리모델링 계획과 진행 과정을 공유하였으며, 대상지 현장 답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신치후



2018 건축문화자산 강연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월 22일(월)과 11월 28일(수)에 소내 중회의실에서 2018 건축문화자산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0월 22일 열린 제2회 건축문화자산 강연회에서는 전은경 대표(버드나무 브루어리)가 '버려진 탁주공장이 지역의 대표 브루어리가 되기까지'를 주제로, 40여 년간 우리의 전통주인 막걸리를 제조하였던 양조장이 수제 맥주 펍으로 재탄생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였다. 여행기자였던 전은경 대표가 버드나무 브루어리를 기획하고 창업하기까지의 과정과 현재의 공간을 발굴하고 공간이 가지고 있던 기억을 담아내는 과정,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11월 28일에는 제3회 건축문화자산 강연회가 조재원 대표(공일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의 '공간에서 共間으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조재원 대표는 1979년 김수근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샘터사옥'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새로운 사용자들의 열린 플랫폼 공간인 '공공일호'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과거 샘터사옥이 가지고 있던 건축적·도시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기억의 인수인계 과정부터 복원 과정, 새로운 장소성의 토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였으며, 가치 있는 건축물의 보전·활용 프로젝트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다각도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되었다.

이민경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한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시상식과 전시회가 지난 10월 5일(금)부터 10월 7일(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경상북도·경주시와 함께 주최하는 '2018 한옥문화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한옥공모전은 '한옥, 길을 만나다'를 주제로 상업가로변에 대응할 수 있는 한옥건축의 가능성을 탐색해보도록 하였다. 준공·계획·사진 총 3개 부문에 걸쳐 공모전을 진행하였으며, 준공 부문 3개 작품, 계획 부문 15개 작품, 사진 부문 29개 작품 총 47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준공 부문 '올해의 한옥대상'에는 '장안사랑채(이소건축사사무소 김미진)'가 선정되었다. 장안사랑채는 수원 화성의 한옥 집단 조성지역 내 기존 한옥과 번잡한 중심 가로를 조화롭게 하는 디자인을 통해 도시건축으로서 한옥이 나아가야 할 덕목을 보여주었다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획 부문 대상에는 선정된 '적층한·옥(명지대학교 우종성 외 3명)'은 한옥구조와 재료, 형태에 대한 이해도와 완성도가 높았고, 한옥을 현실적인 상업공간으로 제안하여 한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 받았다. 사진 부문 대상은 현충사에서 촬영한 '한옥 속의 풍경(이광수)'이 선정되었다.

이번 한옥공모전에는 230여 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주로 주거 용도로 인식되던 한옥을 상업시설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 보다 적극적인 현대화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신치후



‘어린이 경관교육’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수정시정연구원과 함께 어린이들의 지역경관 가치 인식 향상을 위한 ‘어린이 경관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10월 18일(목)과 23일(화) 경기 수원시 산의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여 11월 6일(화) 충남 홍성군 장곡초등학교 5학년, 11월 7일(수) 충남 논산계룡시 성덕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총 세 차례 진행하였다.

교육은 먼저 경관의 개념과 정의, 경관의 유형과 종류를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또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좋은 경관과 나쁜 경관을 구분하고 좋은 경관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학생들이 직접 우리 동네를 돌아보며 경관을 살펴보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학교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주요 건물, 땅의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차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조사 후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경관을 선택해 그림이나 지도를 통해 표현하고, 발표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지역의 자랑할 만한 경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민

2018 제2회 auri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월 24일(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2018 제2회 auri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내가 꿈꾸는 건축가·도시계획가·조경가 되어 보기’를 개최하였다.

auri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축가·도시계획가·조경가가 하는 일에 대한 대상 학생들의 이해를 넓히고, 학생들이 직접 그들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열어 왔으며, 올해 4월 세종시 아름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2018년 두 번째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은 세종시 다정중학교 학생 30여 명과 함께 진행하였다.

먼저 건축가·도시계획가·조경가의 역할과 업무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관련 대학 전공과 학습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각자 꿈꾸는 건축물과 도시 등의 모습을 서로 논의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공간을 그리고 구체화하면서 건축가·도시계획가·조경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의 폭넓은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고영호



news